

교육대학 온라인 무용수업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연구

- 신체표현활동 강의를 중심으로 -

유미희*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연예술계, 교육계도 변화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untact)’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한 시기에 사회 전반에 걸쳐 ‘온라인’, ‘원격’이라는 현상은 주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공연예술계는 무관중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공연을 시도하고 있다. 무용 장르는 무대 현장에서 보이는 무수한 움직임과 다양한 무대제반 요소인 음악, 의상, 설치 등 촘촘하게 얽힌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감상이 이루어지는 ‘현장성’이 두드러지는 예술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화된 공연의 형태는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으나 현장성이 결여된 예술은 관객에게 많은 아쉬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계 또한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교육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장성’이 두드러지는 무용의 특성상 교육자들은 온라인 기반 교육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무용수업 경험을 자문화 기술지로 해석, 기술함으로써 새로운 무용수업의 한 형태로서 온라인 무용수업을 탐색하고 향후 효율적인 온라인 무용학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는 ‘원격 교육’이라는 광범위한 개념 아래 ‘웹 기반 학습’, ‘사이버 학습’, ‘이 러닝(e-learning)’ 등 여러 교육 형태를 아우르는 용어로 통용되었는데 용어들 사이에 개념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나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이 러닝’으로 점차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¹⁾ 현재는 온라인, 디지털, 원격 수업이라는 용어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 경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terpsi2001@ginue.ac.kr

있으며²⁾,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줌(Zoom), 행아웃(Hangouts), 팀즈(Teams) 등 일방향 및 양방향의 다양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교수자는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대면 수업에서 실시간 화상강의, 강의 동영상 사전 녹화, 강의 교안 녹화 또는 녹음, 그리고 기존 매체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미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면 교수자에게나 학습자에게 모두 새롭고 놀라운 경험이며 에듀테크(Edu-Tech)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접속 폭주로 인한 과부하, 빈곤한 가정의 스마트기기 부재,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 부재 및 사생활 노출, 학습능률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온라인교육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교육에 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로는 온라인교육, 자문화기술지, 그리고 무용수업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온라인 교육에 관한 연구는 허운나 외(2000)³⁾, 이종연(2003)⁴⁾, 정은이(2008)⁵⁾ 등의 연구로 이 연구는 온라인 수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교육대상, 수업방법에 따른 수강생의 반응, 문제점 모색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중민 외(2002)⁶⁾, 윤재석(2007)⁷⁾, 문영미(2010)⁸⁾, 신지혜(2015)⁹⁾, 남지원 외(2017)¹⁰⁾, 이순흠 외(2017)¹¹⁾ 연구는 온라인 강의의 효율성, 만족도, 효과를 분석하여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둘째, 자문화기술지에 관한 연구는 김현정(2010)¹²⁾, 고현정(2013)¹³⁾의 연구로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자문화기술지에 대한 학문적 가치와 타당성을 재고하고 정당성을 확립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무용수업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연구로 유미희(2016)¹⁴⁾, 이혜진의(2017)¹⁵⁾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 교사의 철학, 역할 등의 다채로운 교수경험을 탐색한 연구가 있다. 현재 급격하게 원격 교육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대면 온라인 무용 수업에 관한 연구 및 교수자의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상황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전환된 온라인 무용수

-
- 1) 정은이(2008), 대학 교양강좌로서 온라인 창의성 교육의 가능성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9(3), p.31.
 - 2) 김상미(2020),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교육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기사 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1(6), p.1091.
 - 3) 허운나, 박미혜(2000), 인터넷과 화상회의를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공학연구』 16(4), pp.225-258.
 - 4) 이종연(2003), 실시간 웹 기반 교육 운영 사례 연구: K 대학교 실시간 웹 강좌 운영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9(2), pp.5-37.
 - 5) 정은이(2008), 대학 교양강좌로서 온라인 창의성 교육의 가능성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9(3), pp.29-61.
 - 6) 안중민, 장종욱(2002), 대형 강의를 위한 실시간 원격 화상 강의 시스템의 분석 및 강의 효율성의 평가,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6(4), pp.15-22.
 - 7) 윤재석(2007), 온라인 예술교육 실태와 효과에 관한 연구: 순수음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8) 문영미(2010),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과정 수강생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7(1), pp.19-35.
 - 9) 신지혜(2015), 면대면 강의와 화상 강의가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의 수업 만족도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비교 분석, 『음악교육공학』 22, pp.83-102.
 - 10) 남지원, 남택진(2017), 실시간 원격 강의 개선을 위한 능동적 투명도 적용 양방향성 인터랙션,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 pp.533-537.
 - 11) 이순흠, 김동식, 최관순(2017), SNS를 활용한 간편한 강의평가 현장 피드백 방법 제안,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5(4), pp.115-125.
 - 12) 김현정(2010), 문화기술지적 무용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4, pp.55-85.
 - 13) 고현정(2013), 자문화기술지의 학문적 적용과정과 무용 자문화기술지 방법론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1), pp.35-53.
 - 14) 유미희(2016),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본 한 교육대학 교수의 무용교수경험 탐구, 『무용예술학연구』 60(3), pp.109-122.
 - 15) 이혜진, 전병운(2017), 지적장애 특수학교 방과후 학교 무용강사의 수업 경험, 『특수교육논집』 21, pp.117-146.

업경험을 자문화기술지로 기술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따른 무용수업의 형태를 살펴보고, 변화와 적응의 과정에서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드러난 효율적인 무용수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참여자로서 나

자문화기술지에서 연구대상은 ‘나’이다. 본 연구는 나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과 고백적 성찰에 의존하여 온라인 무용교육의 교수경험을 기술한다. 나는 교육대학에서 무용교수로 15년간 재직하고 있다. 실기는 한국무용을 전공하였고 무용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무용교육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5세에 무용을 시작하여 무용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 소재 A대학교 무용과에 진학하였다. 동일 대학교 산하 일반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쳤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과 교육대학, 그리고 경북, 전북 소재 종합대학에서 총 13여 년에 걸친 강사생활을 지냈다. 무용실기와 이론, 그리고 무용교양 관련 강좌를 전공인과 비전공인을 대상으로 가르쳤고 평생교육원에서 9년에 걸쳐 한국무용을 지도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중·고등학교 교사연수를 담당하였으며 교육대학에 임용 후 초등체육과 직무연수강사로 현장교사들을 가르쳤다. 이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위원과 지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다양한 무용교안을 구안하고 관련프로젝트를 수행하는가 하면, 2009개정과 2015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체육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자문화기술지를 활용한다. 자문화기술지는 교육학분야⁶⁾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교육학, 인류학 분야에 많이 활용되는 연구방법이다. ‘자’(auto), ‘문화’(ethno), ‘기술’(graphy)은 연구자, 문화, 기술지 요소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온다.¹⁷⁾ 즉, 어떤 현상에 대해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 연구자의 시선을 통해 사회문화적 현상과 연결 짓는 자서전적 특성과 문화기술지적 특성이 혼합된 연구방법이다.¹⁸⁾ 교육학을 시점으로 체육교육학으로 방법론이 확산되어 현재에는 상담학, 사회복지, 예술심리치료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무용교육 분야에서도 자문화기술지의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로서 ‘나’를 일인칭으로 하여 기술하고 자문화기술지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2020년 1학기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문서자료와 기억자료, 자기관찰지, 수업교안, 학생평가의견을 대상으로 수차례 정독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연구주제와 관련된 상위개념으로 범주화 하였다. 자료중 의미있는 문장이나

16)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 pp.55-79.

17) 이현진, 이동성, 김명찬(2020), 상담학 이론에 기반한 자문화 기술지의 개념적 특질 탐색, 『질적탐구』 6(3), p.73.

18) 이현진, 김명찬(2018), 정서기반 자문화기술지의 방법론적 탐색, 『질적탐구』 4(1), p.36.

단어들을 선택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추상화된 일반적인 개념들로 재구성하여 연구결과의 각 절의 주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온라인 관련 선행연구와 문서 자료, 수업교안, 자기관찰지, 학생강의평가문을 여러 차례 정독하면서 지나친 주관화를 지양하고자 하였다. 둘째, 현재 처해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회·문화적인 현상과 자전적인 경험들을 연결시켜 주관적, 객관적, 성찰적 자아의 세 측면으로 다각도로 현상을 해석하였다. 셋째, 자전적 측면과 문화기술적 측면에서 현재 처한 비대면 교육으로의 변화과정 및 교수자로서의 철학, 고민 등을 기술하였으며, 비대면 무용수업에 대해 제언하였다. 넷째, 최종적으로 동료 교수진의 도움을 받아 자료 해석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또한 자문화 기술지, 무용교육 관련 전문가 2인으로 부터 조언과 자문을 받아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III. 연구결과

온라인 무용수업 경험은 교육환경의 변화, 교육내용의 재구성, 그리고 교수방법의 전환에 관련된 이야기로 서술된다. 온라인 문맹, 두렵고 당황스러운 수업, 친절한 교수자 되기,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온라인문맹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발된 교육환경에 문화 지체자로서 노출된 나의 모습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고, 둘째, 두렵고 당황스러운 수업은 교육내용의 재구성과정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가운데 새로운 수업을 구상해가는 나의 모습에 대한 성찰이다, 셋째, 친절한 교수자 되기는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교육 내용과 교수방법을 달리함으로써 교육의 내적 역할에 주목하게 된, 즉, 학습자의 관점에서 전개된 교육실천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1. 온라인문맹

나는 386세대이다. 30대의 나이를 1990년대에 지냈으며, 1960년대에 태어났다. 나의 학창시절을 회상해 보면 대학교 수업은 전통적인 수업방식으로 강의식 수업이었다. 면대면 수업으로 많은 학생이 강의실이나 무용실에 출석하여 언어나 몸짓을 통한 교수자의 해설이나 설명을 중심으로 지식을 전달받았다. 학습평가는 단답식이나 주관식으로 이루어진 정기적 시험, 혹은 수행평가를 통해 이루어졌고 과제제출은 리포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과제에 필요한 장비는 주로 글쓰기로 일관되어 나의 사고와 관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기본적 능력과 명쾌한 손글씨만 있으면 가능하였다. 대학원 석사과정에서는 이론교과에 집중되었고 과제제출은 직접 손으로 쓰는 수기, 혹은 타자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석사과정은 학위논문으로 졸업하였다. 따라서 연구주제를 보다 명료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논점을 객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으며 타자기를 통한 기계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었다.

내가 본격적으로 미디어 매체를 접한 것은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였다. 1990년대 초반 개인용 PC를 처음 접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는 IBM PC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의 대중화가 이루어졌

고 그 당시 박사과정 수업에서는 문서작성에 컴퓨터가 사용되었다. 무용과를 졸업한 나로서는 매우 생소했다. 무용보다 학문적 성과가 축적되었던 체육학과에서는 이미 컴퓨터는 일반화된 학습매체였다. 석사과정에서 독수리 타법으로 시작된 나의 타자기술은 컴퓨터 타자 연습을 거쳐 익숙해졌고 모든 과제 제출과 학위논문은 컴퓨터 매체의 힘을 입어 완성되었다.

교수자로서 나의 무용교과 강의는 주로 실기중심이었고, 실기 및 이론교과에서 사용되는 교수매체는 CD, VHS(Video Home System), 오디오, OHP(overhead projector) 등이었다.

2020년 코로나 19사태는 교육현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주로 호흡기로 전염되는 범유행성 전염병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대학교육에서도 그 대체방안으로 온라인 수업이 제시되었다. 온라인수업은 한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생소한 수업형태였고 내게는 커다란 아주 부담스러운 과제로 다가왔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난리법석이다. 마스크를 사지 못해 마스크 구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움이 앞선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라 한다. 온라인 수업! 문서작업을 주로 해 왔던 내가 과연 화상으로 하는 강의나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온라인 작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2020년 3월 4일 자기관찰지)

온라인 수업은 그동안 대학에서도 수업운영지침의 하나로 이용되었다. e러닝(e-learning) 또는 b러닝(blended learning)의 형태로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내용을 증진하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었다.¹⁹⁾ 코로나 19 경계 정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학사일정은 2주 개강연기로 결정 되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동영상 제작이 온라인 강의 예시로 제시되었고 이에 관련된 각종 파일이 첨부되었다.

동영상 제작을 어떻게 하며 이클래스는 또 어떻게... 유튜브는 보기만 했지 만들어 보지도 못했는데 아! 난감하고 두렵다. 왜 이런 시대가 와서 이 나이에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하는지... 너무 당황스럽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염증은 점점 심해지고..." (2020년 3월 16일 자기관찰지)

온라인 수업확대방안, 온라인 수업제작 및 운용교육실시에 대한 안내문이 전 교직원에게 메일로 전달되었다. google hangout meet 양방향 강의, 발표 수업용 실시간 화상교육 매뉴얼, meet를 활용한 쉬운 강의 동영상 만들기, e-class상 수강생 SMS 보내는 방법, 구글 드라이브 동영상 이클래스 탑재방법 등이 수차례 메일로 전달되었고 이에 관련된 수업운영교육을 세 차례 받았다. 거듭되는 온라인 교육 속에서 수차례 강의 내용을 반복 시청하며 시연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후배 교수나 강사의 도움을 받아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2. 두렵고 당황스러운 수업

신체표현활동 교과는 1학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양교과이다. 올해 1학기에는 전임교

19) 경인교육대학교(2017), 『대학요람』, pp.50-51.

수 2인과 강사 2인이 20개 반 중에 10개 반을 지도했다. 내가 지도한 수업은 4개 반이다. 개강일정과 대면, 비대면 수업에 대한 지침이 발표된 후 관련 교수자와의 협의로 교과 내용을 조정했다.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정부지침에 따라 학사일정이 운영되었기에 비대면 수업의 수차례 연장과 수업운영의 일부 내용이 탄력적으로 적용되면서 처음 7주간은 대체과제로 수업을 진행했다. 체육교과 내 표현활동은 3,4,5,6학년이 학습해야 할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움직임 표현, 리듬표현, 민속표현, 주제표현의 내용이 그것이다. 대체과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교과내용 관련 동영상을 분석하는가 하면 인터넷, 혹은 무관중 무용공연을 시청하여 감상문을 제출하는 것이다.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머지 8주는 실기수업으로 진행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2020학년도 1학기 신체표현활동 강의계획안

주	강의 내용	강의 방법
1	도서관 또는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체육 교과서 표현 영역 조사 후 한 학년을 선택하여 내용 정리 ※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들 중 하나 선택	과제물 대체
2	무용(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중 하나) 공연 동영상 감상 후 감상문 작성 ※ 학생, 아마추어 공연 제외, 전문 무용단 공연	과제물 대체
3	초등학교 포크댄스 동영상 한 개를 검색 후 내용 및 동작 정리 ※ 구스타프스 스콜, 패티케이크 폴카, 티니클링 등	과제물 대체
4	초등학교 소고춤 동영상 검색 후 내용 및 동작 정리	과제물 대체
5	초등학교 탈춤 동영상 검색 후 내용 및 동작 정리	과제물 대체
6	무용 영화 동영상 감상 후 감상문 작성 ※ 뮤지컬, 연극 등 제외	과제물 대체
7	초등학교 포크댄스 동영상 위와 다른 한 개를 검색 후 내용 및 동작 정리 ※ 구스타프스 스콜, 패티케이크 폴카, 티니클링 등	과제물 대체
8	교과목 설명 / 과제 설명	온라인 강의
9	교육과정, 체육교과, 표현 영역 / 움직임 언어, 표현 요소 등	온라인 강의
10	소고춤 유래, 동영상 감상 / 기본 동작 설명 등	온라인 강의
11	소고춤 동작 설명 / 작품	온라인 강의
12	구스타프스 스콜 유래, 동영상 감상 / 기본 동작 설명 등	온라인 강의
13	구스타프스 스콜 동작 설명 / 작품	온라인 강의
14	패티케이크 폴카 유래, 동영상 감상 / 기본 동작 설명 등	온라인 강의
15	패티케이크 폴카 동작 설명 / 작품	온라인 강의

신체표현활동 교과는 실기수업이다. 움직임 표현을 비롯하여 민속표현의 학습개념을 인지하고 이를 몸으로 창작하고 경험함으로써 초등교과에서 지도해야 할 무용지도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따라서 실기수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과이다. 민속춤의 기본동작과 자세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경험함으로써 각 나라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소양을 습득하는 것이 본 교과와 핵심활동이다. 민속춤을 배우고 따라 하며 학습하는 것이 예비교사에게는 처음으로 무용을 접하는 감각적 체험이자 무용 지도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실

기를 지도해야 하는 당혹스러운 현실은 수업준비에 대한 부담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한꺼번에 안겨 주었다.

내가 무용을 배울 때 동영상 보고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때는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영상을 보고 춤을 배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전공자가 아닌 이 아이들이다? 물론 K-pop, 아이돌 그룹의 춤은 핸드폰을 보고 따라하고 연습하지만 그건 저희들이 좋아서 하는 거지만, 과연 한국춤을 할 수 있을까?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고 장비도 없이 학교 무용실에서 해야 하는데... 영상 속의 내 모습, 아! 정말 싫은데... 자신이 없네, 어떻게 해야 하나? (2020년 4월 17일 자기 관찰지)

동영상 촬영은 내게 익숙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방송을 통해 춤추는 모습이 잠깐 실시간으로 방영된 적은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공연에 출연해 본 적은 있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그런 내 모습을 촬영한다는 것은 많이 어색하고 자신 없는 일이었다. 촬영은 학교 무용실에서 이루어졌다. 강사1인과 지인 1인의 도움을 받아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했다. 동원된 장비로는 삼각대, 음악CD, 마이크, 전자교탁이다. 동영상 콘티를 미리 구성하고 학습내용을 PPT로 작성한 후 전자 교탁으로 자료를 띄웠고 소고춤을 녹화했다. 소고춤은 민속표현의 하나로 5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다. 한국춤에 대한 개괄적 이해는 PPT에 음성을 입히고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이전 차시에 탑재할 예정이었다. 실기영상은 한국춤의 특징과 더불어 기본춤사위, 소고춤 춤사위 설명하기, 그리고 소고춤 추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동영상을 녹화하고 탑재하면서, 그리고 영상 속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색한 나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목소리도 이상하고 한국말을 못하는지 몰랐다. 같은 단어만 계속 반복하고 발음은 버벅거리고 목소리는 명쾌하게 들리지 않고,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알겠다. 책도 좀 많이 읽을걸. 이제 욱하지 말아야지... 시선은 왜 저렇게 위를 바라보고 있지? 춤추는 영상은 거리 조절이 됐어야 하는데... 왜 저렇게 출렁대는지, 좀 더 연습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2020년 4월 22일 자기관찰지)

영상 속에 객관화된 나의 모습은 내가 갖고 있었던 단점을 모두 노출시켰다. 소고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가로서, 그리고 소고춤 춤사위를 시연하는 무용수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설명은 매끄럽지 못했고 동작은 완벽하게 구사해야 했고 영상은 좀 더 가까이 비추어 개별동작과 연결동작의 정확성이 연출되어야 했다.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촬영을 반복했고 필요한 부분은 편집으로 처리하여 내용전달의 효율성을 갖도록 하였다.

3. 친절한 교수자 되기

온라인 수업할 때 유의사항 중 하나는 학습자를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실제 존재한다는 실재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교수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수업 운영특강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방적 전달이 아닌 학생과의 끊임

입없는 소통이었다. 실시간 화상 강의에서는 채팅을 통해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지고 강의동영상 사전 녹화, 교안을 활용한 강의녹음, 기존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비대면 수업에서 소통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필수적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강의식, 주입식 전달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나는 동영상 강의 외에 학생들에게 SMS, e-class의 쪽지함, 이메일 등을 활용해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학습내용의 변경, 과제제시, 평가관련 사항, 동영상 탑재 시 유의점 등을 지속적으로 쪽지함, SMS로 공지하였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하는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e-class의 과목 공지사항으로도 반복하여 강조함으로써 관련 내용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1주일이라는 학습기간을 설정하는가 하면, 평가와 관련된 특정 동영상은 학기말 평가 이전까지 학습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성과를 높이려 하였다.

최선의 상황에서 과제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상자료와 안내를 신속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실기를 직접 해보면서 무용과 신체표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학기 학생평가의견)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웠지만 교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공지와 피드백이 신속 하셔서 좋았습니다. (2020년 1학기 학생평가의견)

나는 대체과제와 동영상 사전녹화를 통한 영상탑재, 그리고 PPT 교안에 음성을 녹음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동영상 강의는 4인의 교수자가 각 영역별로 분담하여 영상을 제작하였다. 내가 담당한 영상은 민속표현중 소고춤강의이다. 한국민속춤으로 소고춤은 비전공자 학생들에게 매우 생소한 내용이며 영상을 통한 실기지도는 교수자에게나 학습자에게 모두 수업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나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동작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소고춤 개별 동작을 상체와 하체동작으로 나누어 설명한 후 상·하체를 연결하여 설명하였고 신체 각 부위의 각도, 시선, 회전 방향 등을 움직임 표현요소와 연관 지어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움직임 표현과 민속표현의 연계성을 유도하고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동작 설명은 이전의 대면강의보다 더욱더 자세하게 진행되었다. 대면강의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기에 교수실재감이나 학습실재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김지심, 강명희(2010)²⁰⁾의 연구에 의하면 교수실재감이란 교수설계(instruction)와 운영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수준을 의미하며, 학습실재감은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학습내용을 가지고 학습할 때 내부적으로 지각하는 인지적, 감성적 현민(賢敏)함을 의미한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교수실재감이나 학습실재감 역시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재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교수실재감은 교수가 이루어지는 교수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교수자의 전문적 능력이나 열정으로 대변될 수 있는가 하면, 학습실재감은 학습상황이나 내용과 관련된 지적, 감성적 인식을 말한다. 다음에 제시된 학생강의평가 의견(2020년 1학기)은 학생들이 학습실재감과 교수실재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20) 김지심, 강명희(2010), 기업 이리닝에서 학습자가 인식한 교수실재감과 학습실재감, 학습효과의 구조적 관계 규명, 『아시아교육연구』 11(2), p.30.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오랜만에 무용하는 수업이어서 기대가 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해서 아쉬웠던 강의였습니다. 하지만 과제들과 직접 무용을 해보는 활동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직접 몸으로 춤을 추고, 따라 해보면서 혹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춤추는 동영상을 보면서 직접 표현활동 단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가 된다면 이때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과제를 하고 직접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하며 이러한 거부감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무용을 감상하고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준 의미있는 강의였습니다.

교수님의 우아한 춤선을 흉내내보겠다고 애써 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ㅎ 혼자 연습하고 영상 찍었던 그 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동작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직접 보여주셔서 동작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교수님께서 준비도 철저히 해주시고 친절하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과제와 영상강의를 통해 학습실재감과 교수실재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러 가지 춤을 직접 모방하고 창작하면서 표현활동을 이해하게 되는 인지적 실재감과 더불어 영상을 촬영하는 새로운 경험에 흥미를 느끼기며 즐기는 감성적 실재감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실재감은 춤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무용이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수지식으로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내용의 준비와 전달체계에 만족하면서 친절한 교수로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교수자의 노력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된 무용수업경험을 자문화기술지로 기술하였다. 2020년 1학기에 진행된 교양교과 신체표현활동의 무용교수경험을 기억자료, 수업교안, 온라인 교육관련 문서자료, 자기관찰지, 학생들의 강의평가의견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하였다. 자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교육이라는 비대면교육은 오프라인에서 면대면 교육으로 강의를 진행해왔던 나에게 문화지체자로서 온라인 문맹임을 인식하게 하였다. 실시간으로 동일한 시공간에서 행해지는 무용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대면 교육이 일반화된 전통적인 수업방식이 있었다. 온라인 무용수업경험이 전혀 없는 나에게는 온라인 교육이라는 변화된 환경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교수역량증진을 위한 온라인수업운영특강을 반복, 수강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둘째, 비대면 교육은 두렵고 당황스러운 수업으로 내게 다가왔다. 화상교육, 동영상강의, 영상탐재,

구글 드라이브 등, 이 모든 환경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다. 수업내용, 운영, 평가에 이르기까지 비전공인 학생을 위한 영상 실기수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며 학습의 결과와 그 효과에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영상에 노출되는 나의 모습은 객관화된 실체로 춤에 대한 나의 지식과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으며 교수자로서 좀 더 온전한 나의 모습에 대한 자각의 계기가 되었다.

셋째, 친절한 교수자 되기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방적인 교육형태에서 쌍방소통이 가능한, 학습주도자가 아닌 안내자로서의 역할에 더욱더 충실하게 하였다. 동영상 강의는 시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난 강의형태로 무엇보다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의욕을 이끌어내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학습의 성과를 좌우한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강력한 학습동기가 없는 경우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강의만 수강하며²¹⁾, 궁극에 가서는 학습포기나 평가준비에 소홀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학습자로 하여금 실재감을 느낄수 있도록 SMS, 쪽지함, 이메일, 과목공지사항을 통해 학습내용 및 과제, 그리고 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공지하여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했으며 충분한 학습기간을 설정하여 반복적인 복습을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다.

코로나 19로 촉진된 비대면 무용수업은 온라인 교육의 장단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수업이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은 개인적 역량에 따라 수업을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학교나 강의실 외 기타 장소에서, 그리고 인터넷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준비와 운영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진 수업이었기에 학습자나 교수자 모두 어느 정도의 인터넷 지식을 비롯한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나 기술적 부분을 숙지하지 않으면 학습이나 수업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느꼈다. 따라서 향후 효과적인 온라인 무용수업을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지식이 교수자에게나 학습자에게 모두 요구된다. 또한 코로나를 의식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념하여 이루어진 수업이기에 개인학습과 개인과제, 그리고 개별 평가에 집중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간의 인적교류와 소통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에듀테크 시대에 온라인 환경을 이용하여 협력과 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팀플, 협동과제를 비롯한 교육콘텐츠 개발로 학습에 흥미와 몰입을 촉진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1) 정은이(2008), p.48.

■ 참고문헌

- 강은지, 차수정(2019). SCAMPER기법을 활용한 한국무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한국무용 연구』, 37(1): 1-36.
- 고문수(2015). 대학 초임교수의 자문화기술지를 통한 체육교육에 관한 성찰.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3): 65-83.
- 고현정(2013). 자문화기술지의 학문적 적용과정과 무용 자문화기술지 방법론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1): 35-53.
- 김상미(2020).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교육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기사 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1(6): 1091-1100.
- 김지심, 강명희(2010). 기업 이러닝에서 학습자가 인식한 교수실재감과 학습실재감, 학습효과의 구조적 관계 규명. 『아시아교육연구』, 11(2): 29-56.
- 김지혜(2018). 복직 미술교사의 수업 실패 경험과 자기반성 과정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미술교육논총』, 32(3): 179-209.
- 김현정(2010). 문화기술지적 무용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4: 55-85.
- 남지원, 남택진(2017). 실시간 원격 강의 개선을 위한 능동적 투명도 적용 양방향성 인터랙션.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 533-537.
-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 pp. 55-79.
- 문영미(2010).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평생교육원 사회복지 과정 수강생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7(1): 19-35.
- 신지혜(2015). 면대면 강의와 화상 강의가 예비 문화예술교육사의 수업 만족도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비교 분석. 『음악교육공학』, 22: 83-102.
- 안종민, 장종욱(2002). 대형 강의를 위한 실시간 원격 화상 강의 시스템의 분석 및 강의 효율성의 평가.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6(4): 15-22.
- 오소희(2019). 무용교사의 수행체험을 통해서 본 무용교육의 가치와 의미: 자문화기술지를 통한 분석. 『무용역사기록학』, 53: 181-201.
- 유미희(2016).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본 한 교육대학 교수의 무용교수경험 탐구. 『무용예술학연구』, 60(3): 109-122.
- 윤재석(2007). 온라인 예술교육 실태와 효과에 관한 연구 : 순수음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동성(2011).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한국열린교육학회』, 19(4): 1-27.
- 이동성, 정민수(2014). 한 초등교사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역할 갈등에 대한 자문화 기술지. 『교육혁신 연구』, 24(2): 141-162.
- 이순흠, 김동식, 최관순(2017). SNS를 활용한 간편한 강의평가 현장 피드백 방법 제안. 『한국정보

- 기술학회논문지』, 5(4): 115-125.
- 이종연(2003). 실시간 웹 기반 교육 운영 사례 연구: K대학교 실시간 웹 강좌 운영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9(2): 5-37.
- 이현진, 김명찬(2018). 정서기반 자문화기술지의 방법론적 탐색. 『질적탐구』, 4(1): 1-28.
- 이현진, 이동성, 김명찬(2020). 상담학 이론에 기반한 자문화 기술지의 개념적 특질 탐색. 『질적탐구』, 6(3): 71-105.
- 이혜진, 전병운(2017). 지적장애 특수학교 방과후 학교 무용강사의 수업 경험. 『특수교육논집』, 21: 117-146.
- 장우선(2019). 자문화기술지를 통한 무용 예술강사의 지도경험 성찰. 『무용예술학연구』, 73(1): 161-174
- 정은이(2008). 대학 교양강좌로서 온라인 창의성 교육의 가능성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9(3): 29-61.
- 허운나, 박미혜(2000). 인터넷과 화상회의를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공학연구』, 16(4): 225-258.
- Kwak Young Eun(2017). Gains and Losses of a Resident Dance Group: An Auto-ethnography. 『무용예술학연구』, 65(3): 43-65.
- 경인교육대학교(2017). 『대학요람』.

논문투고일 2020. 08. 17.

심사일 2020. 08. 24.

심사완료일 2020. 09. 02.

An Auto-ethnographic Study on Online Dance Class Experiences at 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Focusing on Physical Expression Activities –

Yoo, Mi-Hee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uses auto-ethnography to review my experience of a dance course conducted onlin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rough the qualitative analysis of personal recollections, course plans, online sources, course materials, self-evaluations, and student evaluations of the course, the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s an instructor who had only taught in face-to-face settings, I realized my lack of familiarity with modern technology and online culture.

Second, I found online education that involved no face-to-face contact intimidating and frustrating.

Third, to be a guiding rather than a leading instructor, I focused on adapting to the changing conditions and maintaining a two-way communication environment to avoid a one-way instruction.

Keywords: Online education(온라인교육), Physical expressive activity(신체표현활동), Dance education(무용수업), Teaching experience(교수경험), auto-ethnography(자문화기술지)